

막대놀이 막대퍼즐

클러츠 출판사 편집부 엮음
성인문화사/B5변형/20면/5500원

‘막대놀이’는 우리의 전통놀이 가운데 아이들에게 쉽게 익히게 하던 ‘산가지놀이’와 그 방법이 유사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놀이 방법은 가느다랗게 깎은 막대를 뒤죽박죽 떨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는 막대를 건드리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원하는 막대를 집어내는 것. 단, 게임에 참여한 친구들끼리 차례를 잘 지키면서 한번에 단 한개씩만 집어내야 한다.

예민한 손가락 감각이 요구되는 이 방법 외에도 집중력이 요구되는 ‘넘놀이’와 여러가지 도형과 문자를 만드는 ‘막대퍼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균형잡기’가 소개된다. 부록으로 예쁜 색깔에 잘 깎인 막대 30개가 한 묶음 들어있다.

정글짐

프렐링 퀴스트 필러 지음/이태건 옮김
아람/B5/64면/4000원

지구를 지키는 신비로운 동물 ‘정글짐’이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호소하는 그림동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정글짐이 살고 있는 숲과 강물은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이런 전설을 알 턱이 없는 정글짐은 오염되지 않은 푸른 정글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신비로운 전설의 주인공 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사벨라와 남편 콘라드는 짐을 정글에서 잡아온다. 짐은 인간들의 도시에서 방황하면서도 밀렵의 푸른 자연을 항상 그리워한다.

인간의 이기심이 자연을 망치고 있음을 경고하는 잘 짜여진 환경동화이다.

비둘기집 아이들

조영현·조영한 지음
고려원미디어/A5신/290면/4000원

1984년 당시 국민학생이던 두 형제가 「비둘기집」이라는 제목의 가족신문을 처음 발행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제 그 「비둘기집」은 두 형제의 꾸준한 노력 덕에 창간 열 둘을 맞이했고, 편집자인 저자들은 현재 서울대 동양사학과 2학년과 연세대 영문과 1학년에 재학중이다.

이 책은 「비둘기집」 창간 열 둘을 기념하여 그동안 매달 발행됐던 신문가운데 주요 내용들만 발췌해 엮은 것이다.

4대에 걸친 가족사가 중심내용이며 편집자인 두 형제의 성장과정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행복을 가꾸 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가족들의 숨은 노력들을 통해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한별이의 역사인물여행 I

이상은 지음/강덕선 그림
웅진출판/A5신/286면/4000원

동화와 위인전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는 작품으로 기존의 위인전이 딱딱하고 지루했던 점을 보완해 다섯 명의 위인들의 삶을 재미있는 동화로 구성한 위인전.

주인공 한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독후감 숙제를 위해 위인전을 읽다가 잠이 든다. 꿈속에서 한별이는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아 속상한 날, 키는 작지만 용감했던 강감찬 장군을 만나 용기를 얻는다. 그후 차례차례 원효대사, 이순신, 세종대왕, 안창호 등을 만나면서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고민하던 문제도 해결한다.

꿈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넘나들게 하는 신기한 책이다.



아빠랑 떠나는 컴퓨터 여행

유재현 지음/김우선 그림
창작과비평사/A5신/200면/3500원

어린이들이 컴퓨터를 쉽게 알고 나서 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입문서.

총 2부로 구성됐으며 제1부 ‘컴퓨터란 무엇일까’에서는 컴퓨터의 ‘굳은모’와 ‘무른모’ 그리고 ‘파일’과 ‘디렉토리’ 등 컴퓨터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제2부 ‘컴퓨터로 우리 무엇을 할까’에서는 컴퓨터 통신의 원리, 멀티미디어, 컴퓨터 그래픽 등 컴퓨터를 응용한 일을 소개한다.

소설가이자 컴퓨터 연구가인 저자는 “어린이들이 알고 있듯, 컴퓨터는 더 이상 오락기로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이상 우리 생활 전반에서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늘에서 달리기

최영재 지음/이명선 그림
지경사/A5신/218면/4000원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재치가 가득 담긴 단편소설집.

제1부에 실린 「들녘과 민들레」는 “잡종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섞이지 않”아 족보까지 있는 순종 진돗개 ‘들녘’을 산 김사장이 들녘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제2부의 「할아버지 선생님」은 주인공 ‘찬이’의 담임 선생님이 젊고 예쁜 여선생님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부임하면서부터 그 영향으로 찬이가 어른스러워지는 과정이 들어있다. 갑자기 찬이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다가 하면 등하교인사를 꼬박꼬박 한다. 그로 인해 가족이 화목해진다.

호뭇한 감동을 전하는 30편의 단편이 어린이들의 순진성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소년 일지매

서하원 지음
한민사/A5신/192면/4000원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 소년이 무술을 연마하여 아무도 손을 못대는 범죄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무협소설.

어느날 건강진단서를 본 민철은 자신이 부모님과 다른 혈액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다. 뒤이어 자신이 세살 때 친부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다. 그러나 민철은 절에서 무예를 배우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소년 ‘일지매’는 불량배와 마약 밀매범, 수입 농산물상, 수질오염의 주범 등을 차례차례 혼내준다. 신명나는 일지매의 활약상은 제5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가야금 할아버지와 꼬마제자들

최범서 지음
동학사/A5신/206면/4300원

판소리를 공부하는 누나때문에 국악에 호기심을 갖게 된 두 아이가 ‘가야금 할아버지’를 찾아가 국악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이야기.

직접 가야금 산조를 들어보고 풍물을 쳐보기도 하고 굿관, 대취타 등을 구경하면서 “국악은 알면 알수록 정겹고 멋진 음악”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 책은 국악의 개념, 역사, 갈래, 국악기의 종류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국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궁금한 점이 많았던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또 60가지가 넘는 국악기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 부분은 “우리 악기 작은 사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책에서 가장 풍부한 읽을거리로 떠오른다.

너 진짜진짜 이솝우화 읽었니?

박호진 지음 / 김성한 그림
시론 / A5신 / 222면 / 4000원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다가오는 이솝 우화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책.

기존의 딱딱한 논리학습과 달리 친숙한 이솝 우화를 통해 논리적 사고에 접근케 하는 구성을 띠고 있다. 우화를 한편씩 제시한 후 그 우화가 주는 타당성 있는 교훈을 생각하거나 그 우화에 미처 드러나지 않은 궁금증을 논리적 상상력과 이해를 통해 해소하도록 빈 공간을 마련했다.

항상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 풍풍 솟아나는 이솝 우화에서 번득이는 논리적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일억오천만년 그 때 아이에게

신현득 지음 / 송희정 그림
현암사 / A5신 / 184면 / 4500원

지금까지 열권이나 되는 동시집을 상재해 어린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굳건히 보여주고 있는 작가의 열한번째 동시집. '미래의 어린이들'을 주제로 한 동시가 수록됐다.

본문은 전체 3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 '참새네 말 참새네 글'에는 「아가손」 「장독간」 「거울속」 등 어린이들의 꿈을 투명한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이 실렸고, 2부 '손톱깎이 나무'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시가 수록됐다. 마지막 3부 '우리나라 첫날'에는 「고구려의 아이」 「일억오천만년 그 때 아이에게」 등이 실려 어린이들이 친취적인 기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보여준다.

맥킨토시 출력의 새로운 느낌

고해상도 원색스캔
원색분판 출력
인화, 단색필름 출력
이미지 합성, 리터치
편집디자인

보유장비

LinoColorPilot System
ChromaGraph S-2000
Linotronic 630
PostScript RIP 50
Linotronic 330
PostScript RIP 50
Macintosh Full System



꿈의 궁전이 된 생쥐 한 마리

이어령 지음 / 박경희 그림
비룡소 / B5변형 / 32면 / 4000원

세상에서 더럽고 무섭고 나쁜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들도 잘 사귀어 보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동화.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작가가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지혜와 한국인의 정신을 일깨워주고자 '쥐'를 내세워 두런두런 얘기하는 특이한 동화. 도입부에선 미키 마우스와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중반부에 가선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박쥐」 이야기로 이어지며, 정의의 용사 「배트맨」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동서양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이야기는, 말하듯 술술 이어지는 특이함이 있어 아이들을 무릎에 눕히고 읽어주면 제격일 듯 싶다.

내용을 충실하게 살려주고 있는 삽화 또한 훌륭한 볼거리이다.

우리의 옛노래 향가

김한룡 지음 / 박혜경 그림
대교출판 / A5신 / 216면 / 4500원

삼국유사와 균여전에 수록된 향가 25수를 모아, 그 뜻을 풀이하고 관련 설화와 인물, 역사 등을 한데 엮어 이야기식으로 구성했다.

“선화 공주님은/남몰래 얼어 두고/서동방을/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는 백제 30대 무왕 ‘서동’이 지은 「서동요」의 전문. 마를 캐어 팔던 서동은 어느날 신라 진평왕의 셋째딸 선화공주가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는 은근히 사모하게 된다. 신라의 서울 경주로 잠입한 서동은 장안의 아이들을 피어 자신의 「서동요」를 소리높여 부르며 함으로써 선화공주와의 혼인에 성공한다.

이 책에는 「서동요」 외에도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처용가」 「보현심원가」 「헌화가」 등 15수의 향가가 들어있다.



정그라픽스

서울시 중구 목정동 28-29
Telephone 263-6392~3

24시간 상담전화

263-6392